

하이텔 불동에 영어경전방

컴퓨터 통신하며 영어공부해요.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김상일)는 최근 영어경전 게시판을 신설했다.
영어로 불교경전을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영어경전방은 경전전문과 해설을 영문으로 하고 있다.
현재 영어경전방에는 성진경 회원(cjsung)의 반야심경, 양법장회원(bobjang)이 탁닉한스님(베트남)과 에드워드 콘즈(미국 불교학자)의 금강경등의 경전이 올라있다.
영어경전방은 하이텔불교동호회 홈페이지에서 26번으로 들어가면된다.

山寺 갈땀 운불택시 부르세요

전국운불총련 콜택시제 시행

'산속의 사찰을 찾아가고 싶을 때 친절할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면 지역 운불 택시회를 찾으세요.'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한국운불자총연합회(회장 문영호)가 사찰과 불자들을 위해 콜택시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표 참조)
대구개인택시정법회(회장 류지순)는 5일 수성구민운동장에서 등하사주지 성덕스님을 비롯하여 사부대중 6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12주년 기념법회및 호출택시 발대식을 가졌다. 또 대구개인택시 연꽃회(회장 마중주)도 2일 대구 신천동에 사무실을 내고 연꽃호출택시를 발족했다.
불자들이 작은 사찰이나 산간벽지 사찰을 찾을 때 탑승을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운전자로 인한 불편함이 크다. 이를 때 각 지역 운불 택시회를 찾아 불자택시를 이용하면 쉽고 친절하게 해결이 된다.
또 사찰에서 행사를 할 경우 행사 차량을 지원하는 등 불자운전자회

을 모실 택시가 모자라 고민할 정도다. "수입을 올리기도는 봉사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믿고 많이 찾는 것 같다"며 "수입의 일부를 봉사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 콜택시제를 시행하지 않는 곳도 서둘러 준비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제주불교운전자회와

친절봉사에 바가지요금 걱정 '뚝' 성지 안내·사찰행사 차량지원도

택시는 사부대중의 친숙한 도반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선 각 지역 불자운전자회는 콜택시제로 인해 눈코를 새우는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대전운불련 윤현순씨는 "하루 7백~1천2백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대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불자들

경주운불총합회에서는 지역적인 특색에 맞게 지역관광택시도 운영하고 있다.
불자택시는 불자들에게 관광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은 물론 불자성지와 연계하여 알뜰한 소리를 듣고, 불교성지 안내에도 자세한 설명을 곁

◇전국 운불련 연락처

운불련	연락처
제주불교운전자회	(064)510108
서울BBS교동불신연	(02)705-5151
서울법륜회	011-760-3776
경기부천법륜회	(032)668-90073
부산불교운전자회	(051)624-2207
대구운전자회	(053)764-0766
대구개인택시정법회	(053)764-0766
울산개인택시정법회	(052)278-9000~5
강원운전자회	(0647)311-535-2913
경주운전자회	011-523-5722
대전운전자회	(042)626-6463
부여운전자회	(0463)835-9003
청주운전자회	(0431)271-8999
광주불교운전자회	(062)266-4991
안주운불총합회	(0371)763-9911

들어 인기가 높다.
한국운불자총연합회 문영호 회장은 "순남에게 불교안내 책자도 배포해 포교에도 앞장서는 것은 물론 불자들을 위해 친절할 호출택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이기영박사 2주기 추모법회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은 8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연구원 구도법당 원효문교에서 '불연 이기영 박사 2주기 추모법회 및 <불교개론강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추모법회에는 고 기영 박사의 유가족을 비롯 서도 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김중서 서울대 명예교수, 윤이홍 서울대 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삼론종 총무원 서울이전 개원법회

삼론종(총무원장 대정)은 10일 총무원을 충북 충주에서 서울 홍은3동 4-8로 이전하고 이전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종정 대산스님을 비롯 부종정 석봉스님, 총무원장 대정스님, 재정원장 해광스님, 포교원장 법진스님과 신도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종정 대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한국불교발전과 종단발전을 '화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등산반야회 청화스님 초청법회

등산반야회(회장 김재일)은 7일 오후 6시 등산교육관에서 창립 16주년 기념 청화스님 초청정토법회를 가졌다. 스님은 "법보가 선이 근원의 자리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면서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정토사 조실 설산스님, 등산반야회 법주 두진장스님, 전국신도회 순안식 사무총장, 동국연수원 권지홍원장, 등산포교사단 이남형단장, 아미타총무재단 오영희단장 등과 불자 8백여명이 참석했다.



여성실직자위한 화엄등산 개원

우리는 선우(공동대교 남지심 박광서)가 9일 오후 3시 여성실직노숙자들을 위한 화엄의 집 목동 화엄등산을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박광서대표, 화엄의 집 남상관 소장, 강서구청 생활복지국 정진 국장, 화랑선우회 최한수 부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화엄등산은 숙소,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40명 정원이다.

법륜불자교수회 창립 10돌

운문사서 기념법회...국악공연도

법륜불자교수회(회장 신준식)는 8일 경도 청도 운문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및 국악공연을 개최했다.
법회에서 작자사 조실 관음스님은 법문을 통해 "법륜불자교수회 창립 10주년을 축하한다"며 "더욱 정진하여 불법종포에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부에서는 만세루에서 펼쳐진 국악공연에는 96년 전주 대사습놀이 판소리부분 대상을 수상한 주운숙 명창과 대금연주자 김경애씨들이 출연하여 판소리 '흥부가', 민요, 사물놀이를 연주했다.
지난 88년 창립한 법륜회는 현

재 대구 경북과 경남지역의 교수 1백60여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동하게 수련대회와 격월 성지순례 가족법회를 갖고 있다.
또 법륜불자교수회를 14호에 걸쳐 발간했으며, 98년에는 '콘스탄스의 법문과 회원들의 논문을 엮은 <세간과 출세간의 만남>이라는 단행본을 발간한 바 있다.
한편 법륜회는 7월 제6대 임원진을 선임, 고문에 관음스님 명예회장에 정회돈(영남대)교수 회장에 신준식(대구대)교수 부회장에 김광수(영남대)교수와 김상달(영남대)교수를 각각 추대했다.
이윤호 기자 (yhllee@buddhapia.com)



동블라이온스 첫 월례회... 장학금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 제1지역(부총재 김성호, 불교미술관 대표) 동블라이온스클럽(회장 윤천수)이 5일 태워호텔에서 열린 첫 합동월례회의에 참가하고 육바리밀에 입학하여 불교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김성호부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봉사는 물질만이 아니라 불교의 보시와 자비의 마음이 함께할 때 그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동국대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본부 봉사금, 결식아동기금 등을 기탁했다.

우리 모임에선

금융불련 연꽃마을 위문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회장 하용이)는 29일 예천 연꽃마을을 방문하여 위문법회를 개최한다. 이날법회에서 금융단불자연합회는 위문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활동도 결할 예정이다.

송파구 청화스님 설법회

송파구청화사(회장 유종원)는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청화스님초청 대법회를 개최했다. 청화스님은 "모든 중생이 다같이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받들어 만중생이 성불하고 상리만상이 자성대로 살 수 있는 불국토를 만드자"고 법어했다.

청정한 사찰환경 가꾸기 앞장

올 6월 창립...회원 50명 월 2회 산행...신심 다져 지역불교 활성화 노력

사에서 5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준법회를 갖고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에 공식등록했다.
이날 법회에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한계수 상임부회장은 비로자나산악회 회기와 인준패를 김우숙회장에게 전달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 비로자나산악회는 지도법

사에 법인스님(남원 실상사)을 위촉하고 실상사와 지리산에서 창립 기념 첫 산행을 실시했다.
이날 산행에서 비로자나산악회 회원들은 "부처님이 상주하고 계신 산처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불교종풍의 원력으로 지역불교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발원했다.
목포불교대학 학생들이 주축인 목포 비로자나산악회는 지난 6월 7일 창립했으며 앞으로 산행과 함께 주변사찰을 참배하고 법회도 갖는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청정한 사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

곡의 쓰레기줍기운동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로자나산악회는 99년부터 전남지역 산사를 한달에 두번씩 찾기로 했다. 또 다른 지역 불교산악회와 연계 동반산행및 수련대회를 갖고 교류를 통한 화합과 우의도 다짐 예정이다.
김우숙회장은 "산행을 통해 불심과 우의를 돈독히 하겠다"며 "앞으로 산악회와 불교발전을 위해 회원배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목포 비로자나산악회 인준법회가 10월18일 담양정토사에서 열렸다.
한반도 남단 목포에 비로자나산악회가 창립돼 전남지역 불교종풍과 청정국토건설을 일구고 있다.
목포 비로자나산악회(회장 김우숙, 목포해양대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교수)는 10월 18일 담양 정토

'98 광주·전남 불교합창예술제



연꽃은 더러운 곳에서도 그 더러움을 물들지 않고 향상 아름다운 향기와 우아한 자태를 간직하고 있듯이 부처님께서 불교의 진정할 가르침을 더러운 땅에 피는 연꽃에 비유하시는 까닭을 확연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광주·전남 불교합창계 또한 화합과 마음을 철순하게 이끌어내 밝은 생활을 찾는데 일익을 담당하자
올해에도 부처님께 승정공양을 올리는 자리를 마련 하였습니다.
부디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1998년 11월 22일(일) 오후 5시
- 장 소 : 광주남도예술회관(도청앞)

- 주 최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 주 관 : 사암연합합창단, 향림사 합창단, 화엄사 합창단, 광주불교방송합창단, 증심사 합창단, 한마음선원 흥성합창단

· 후 원 : 불교광주방송, 현대불교신문 광주·전남, 복지사 (문의전화 : 062)375-9986)

● 특/별/출/연 ●

살풀이(양 영)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어린이합창단
도신스님, 정윤스님